

종합

민주 지방선거 본선 시작됐다

전남 시장·군수 후보 대부분 확정 ... 순천·해남·신안·무안 남아

오늘 광주 남구청장 후보 시민배심원 경선 선출

전남 22개 시·군 기초단체장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확정되면서 6·2지방선거가 '본선'에 접어들고 있다.

23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남 22개 기초단체장 중 현재 순천과 무안·신안 등 3개 자치단체장을 제외한 목포·광양·여수시 등 19개 자치단체장 후보가 확정됐다.

각 자치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예비후보 중 현재 시장·군수 등 현역 자치단체장은 모두 13명이다. 자치단체장이 공석인 진도·나주·담양 등 3곳과,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강진·광양 등 2곳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90% 이상을 현역 단체장이 석권한 셈이다.

하계 '3선' 도전에 나서게 됐고, ▲여수 오현섭 ▲곡성 조형래 ▲장흥 이명홍 ▲영암 김일태 ▲영광 정기호 ▲구례 서기동 ▲고흥 박병중 ▲화순 전완준 군수 등은 '재선'을 넘보게 됐다.

정치 신인들도 약진했다. 벤처기업인 임성훈 예비후보와 변호사 서종식 예비후보가 각각 나주시장, 광양시장 후보로 선출됐으며, 행정가 출신인 김양수(장성군수 후보)·강진원(강진군수 후보)씨 등도 자치단체장 후보로 확정됐다.

나주시장의 경우 경선에서 탈락한 강인규 예비후보가 최근 재심청구를 기각당하자 법원에 당선인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여수와 광양·진도·보성 등 4곳의 경선 탈락 후보들이 재심청구를 해놓고 있어 후보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 후보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은 순천과 무안, 신안 등 3곳이며, 여기에 김홍식 해남군수가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후보 미확정 지역은 4곳으로 늘게 됐다.

순천시장 경선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지만, 무안과 신안은 경선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해남군수 후보 선정보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경선 차점자 재공모를 통해 해남군수를 공천한다는 계획이지만, 재공모를 할 경우 '기존 경선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지역 후보	지역 후보
목포 정종득	영암 김일태
여수 오현섭 ※재심신청	완도 김홍식
순천 구희승, 조보훈	장성 김양수
※26일 체육관 경선	장흥 이명홍
광양 서종식 ※재심신청	진도 이동진 ※재심신청
나주 임성훈 ※총력정치 가처분 신청	안병호
강진 강진원	김성호
곡성 조형래	※후보 및 일정 미결정
구례 서기동	김홍식
담양 최형식	해남 ※비율수출의 구속 ※후보 사퇴
무안 서삼석, 정해근 ※시민배심원제 ※영광 무기한 연기	화순 전완준
보성 정종해 ※재심신청	강성종, 남상향
영광 정기호	신안 박석배
	※경선 일정 미결정
	고흥 박병중

한편 민주당은 24일 오후 1시 광주 빛고을 노인복지재단에서 김영집·김화진·정재훈·최영호 등 4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시민공천배심원제도 경선을 통해 광주 남구청장 후보를 최종 선출하게 된다.

이날 시민배심원제도 경선은 전문(외지) 배심원과 현지 배심원 각각 100명씩이 참여하게 되며, 사회자 1명과 패널 3명이 참여해 진행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법의 날(25일) 기념식

'스폰서 파문'으로 검찰이 흥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김준규(오른쪽부터) 검찰총장, 헌법재판장, 이규남 법무부 장관, 이용훈 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 이용훈 대법원장은 23일 "법의 지배를 확립하려면 법을 만들고 다누는 국가기관부터 솔선수범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기관이 먼저 법을 지키고 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일반 국민들도 서서히 준법정신이 몸에 배게 되고 법의 권위에도 순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활동은 적극 장려돼야 한다"

대법원 "판사 술·골프 자제를"

고 전제한 뒤, "하지만 최근 언론,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정도를 벗어난 비판을 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의 공정성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은 전국 법원의 판사들에게 당분간 술자리와 골프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6월 말까지 되도록 술자리와 골프 등을 자제하도록 일선 판사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했다.

이날 대법원은 전국 법원의 판사들에게 당분간 술자리와 골프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6월 말까지 되도록 술자리와 골프 등을 자제하도록 일선 판사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했다.

/연합뉴스

시설

후보자 잇단비리 민주당 개혁공천 헛구호

먼저 민주당에 물었다. 민주당이 과연 수권정당(受權政黨)을 표방할 자격이 있는가. 호남에서 민주당이 대안정당이라고 자임하면서도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왔는가. '호남 사람들이 달라 선택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는 자만심에 취해 있지는 않는가. 작금의 공천과정을 지켜보면 하나같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공천 개혁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시민배심원제가 실패작으로 귀결된 것도 내부의 갈등과 민심을 살피지 못한 무리수 때문이다. 그 후유증으로 인해 광주시장 경선이 법정싸움에 이어 '폭로전'까지 가세되면서 '광주'가 우세를 푹푹하고 있다. 일부 시·군에서는 경선에 불복한 재심 신청이 봇물을 이루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경선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실종되고 그로 인해 책임져야 할 관계자들은 말문

을 닫고 있다. 경관조명사업 업체에게 1억9000만원을 행거 검찰에 구속된 김홍식 해남군수가 버젓이 후보에 낙점된 것도 검증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그의 공천은 검찰이 혐의 사실을 확보한 시점에서 이뤄졌다.

여수와 목포시 역시 경관사업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시장이 공천을 받아 수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여수시는 담당 국장이 이미 잠적한 상태이고, 목포시는 시장 측근이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민주당은 적어도 호남에서 만큼은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정도를 걸어야 한다. 민선 4기 민주당이 공천한 기초단체장 가운데 8명이 각종 비리로 물러난 것도 책임져야 하는 몫이다. 그러면서도 또 지역을 여전히 '뒷밭'으로 여긴다면 착각 이상의 우를 범할 수 있다.

순천만 생태계 관광보다 '보전' 우선돼야

국내 첫 탐사르 등록 연안습지인 순천만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순천시가 지난 5년 동안 보전보다는 관광개발을 위해 각종 인공시설을 설치하면서 자연의 원형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순천만은 관광을 위한 유원지가 아니라, 수많은 생물이 존재하는 터전이자 환경보호를 위해 영원히 보전해야 하는 '생명의 모태'이다. 이런 점에서 보전만은 순천시의 행장은 극히 근시안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순천만 지킴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부지역사회연구소(동사연)에 따르면 순천만은 갈대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서 칠면초의 서식지가 침식당하고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종의 다양성 감소가 우려되는 생태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생태계 파괴는 지나치게 큰 전방대 설치, 하구 둔치와 대대선착장 주변의 콘크리트 포장, 용산 등산로 테크 등 순천시가 관광객 증대를 위해 설치한 각종 인공 조형물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동사연의 주장이다. 동사연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순천만은 '세계 5대 습지'로 꼽힐 만큼 귀중한 생태계의 보고(寶庫)이다. 습지는 자연생물의 매우 중요한 서식지인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의 유지와 정화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 '생명의 모태'로 까지 불리고 있다. 따라서 순천만의 보전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무다. 그 어떤 가치도 보전 앞설 수 없다는 얘기다.

순천시는 순천만을 단순한 생태 관광지로 여기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습지는 인류 생존의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으로 '보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순천시는 순천만을 단순한 생태 관광지로 여기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습지는 인류 생존의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으로 '보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생태계 파괴는 지나치게 큰 전방대 설치, 하구 둔치와 대대선착장 주변의 콘크리트 포장, 용산 등산로 테크 등 순천시가 관광객 증대를 위해 설치한 각종 인공 조형물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동사연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농어촌 취약지 공중보건의 311명 배치

전남도, 순회 진료 강화

전남도는 신규 공중보건의 311명을 도내 농어촌 보건지역 취약지역 보건기관과 병원 선 등 293개 기관에 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규 배치로 도내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숫자는 323개 기관에 총 785명이다. 특히 올해는 신종질환 유행 등에 대비해 군 보건소에 내과 15명, 가정의학과 2명의 전문의를 나눠 배치했다.

또 도서지역에는 전문의 1명과 외과 2명,

치과·한과의 각각 1명의 의사를 배치해 야간·주말 응급환자 진료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고 감소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추세를 감안해 취약지역 순회진료와 방문 간호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양자 전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의료취약지역이 많은 전남은 공중보건의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신규 배치된 의료인력들이 보건취약지역에서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절명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에 시각장애인 축구장 '히딩크 드림 필드' 만든다

히딩크 감독 29일 방문 MOU

월드컵 4강 신화의 성지, 광주에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인 '히딩크 드림 필드'가 조성된다. 23일 히딩크 감독의 한국 내 매니지먼트 사업권자인 GHFC(주)에 따르면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4강 진출을 이끌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오는 29일 광주를 방문, '광주 히딩크 드림 필드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광주 지역 시각장애인들과의 만남 시간도 예정돼 있어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광주 히딩크 드림 필드는 충북 충주, 경북 포항, 경기도 수원, 전북 전주에 이어 5번째로 건립되는 것이다. 대상 부지나 건립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히딩크 감독은 MOU 체결식을 마친 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축구박람회인 풋볼피디아 유치설명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r

5조원 투입 전국 미분양 4만가구 정부가 매입

광주·전남 8000여 가구 거래 활성화 기대

분양가 50% 이하 매입 유동성 개선 미흡

정부가 총 5조원의 자금을 지원해 전국 미분양 아파트 4만 가구 이상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기악화로 침체된 광주·전남지역의 주택거래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3월 말 현재 광주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3457가구이며, 전남은 5000여 세대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는 매입대상을 분양가의 50% 이하로 못박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될 답답나=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56차 비상

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재 11만 6000 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물량을 4만 가구 정도 줄여 7만5000 가구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은 올해 5000억원으로 책정된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2만 가구를 사들이기 위해 매입 규모를 총 3조원으로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중소건설사의 준공 전 지방 미분양이 우선이며 자금 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까지 사주기로 했다. 매입 한도는 업체당 1000억원

에서 1500억원으로 늘려주며 매입가는 분양가의 50%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중소건설사의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미분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보유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기존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용자 및 보증을 지원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도입된다.

정부는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판매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확대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한 건설사의 회사채 유통화(P-CBO)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1조원대로 신용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건설업계, "유동성 송동 트레이더만 억부

족"=지역 건설업계는 미분양아파트 매입 확대가 건설사들의 유동성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특히매입가가 분양가의 50% 이하로 제한돼 건설사의 유동성 개선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단지나 동 단위로 통째로 매각하는 속칭 '통매각' 아파트도 할인율이 30%를 넘지 않는 데 건설사들이 50% 이하로 가격을 낮춰가며 '출혈'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지방·중소업체 위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환영할 일이지만 분양가의 50% 이하로 매각할 업체가 몇 곳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이번 대책이 건설사 유동성 확보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겠지만 미분양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이게 뭐니까?!

기아 '신차효과'...매출·영업이익 사상최고

1분기 전세계 30만대 판매 ... 순익만도 3986억 달해

기아자동차가 신차효과와 세계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로 물 들어서도 호실적을 이어갔다. 기아차는 23일 여의도 신한금융투자타워에서 기업설명회를 열고 올해 1분기(1~3월)에 전 세계에서 30만251대(국내공장 기준)를 판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8% 증가한 4조860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3098억원, 당기순이익은 3986억원 을 기록했다. 기아차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1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고치다.

매출은 스포렌터, K7 등 신차를 중심으로 한 판매량 증가와 평균 판매단가 개선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원가구조 유지와 판매관리비 지출 개선에 힘입어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248.6%, 당기순이익은 309.3% 늘어났다. 영업이익률도 6.4%로 지난해 1분기(2.5%) 대비 3.9%포인트 높아졌다.

해외공장에서도 좋은 실적을 냈다. 미국과 중국, 유럽 3개 공장의 매출 총액은 27억 달러, 평균 영업이익률은 4.8%에 달했다. 특히 올해 초 본격 가동된 미국 조지아공장은 스포렌터의 판매 호조로 가동률이 120%에 달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해외 공장의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1분기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아차는 2분기에 스포티지R과 K5를 해외 시장에 출시해 신차효과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浩** 논설주간 **申滄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대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정제부 2200-641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사회1부 2200-612	체육팀 2200-663	사건부 2200-691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